

“사람 대신 로봇이 용접”… HD현대, 조선업에 AI 심는다

美 휴스턴서 바질·페르소나와 MOU
현대로보틱스·조선해양 공동 추진
2026년 시제품, 2027년 실증 목표
고위험 공정 로봇 대체로 안전 확보

HD현대가 인공지능(AI) 및 로봇 기술 전문기업들과 손잡고 국내 최초 용접 휴머노이드 개발에 나선다. 수년간 추진해 온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동시에 조선업 특유의 높은 기술역량과 작업 효율성을 충족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로보틱스는 최근 미국 휴스턴에서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기업 ‘페르소나 AI’, 로봇 엔지니어링 기업 ‘바질컴퍼니’와 ‘조선 용접용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사들은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해 정밀 용접작업이 가능한 휴머노이드를 개발, 조선소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HD현대로보틱스는 AI에 기반한 용접 자동화 기술을 제공하고 로봇 성능 검증을 담당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로보틱스가 최근 미국 휴스턴에서 ‘페르소나 AI’, ‘바질컴퍼니’와 ‘조선 용접용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 세 번째부터) 김성원 바질컴퍼니 CTO, 닉 래드포드 페르소나 AI CEO, 이동주 HD한국조선해양 제조혁신팀 부부장, 송영훈 HD현대로보틱스 솔루션부문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D현대

실제 조선소 환경에서 휴머노이드를 테스트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데이터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페르소나 AI는 휴머노이드 하드웨어 개발 및 AI 기반의 로봇 제어, 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바질컴퍼니는 휴머노이드에 탑재할 용접 도구를 개발하고 테스트베드 구축을 담당한다.

참여사들은 오는 2026년까지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는 본격적인 현장 실증과 상용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HD한국조선해양이 추진 중인 스마트 조선소 구축 전략

의 연장선으로도 해석된다. 회사는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데이터 기반 가상·증강현실, 로보틱스, 자동화,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FOS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미 AI와 로봇 기술 도입을 가시화한 가운데 이번 휴머노이드 개발을 통해 두 기술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새로운 제조 모델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분석된다.

HD현대 관계자는 “용접 휴머노이드는 생산성 향상은 물론 작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선소 작업에 최

적화된 휴머노이드 구현을 통해 조선업 자동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닉 래드포드 페르소나 AI 대표는 “AI 기술을 조선업의 핵심 공정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라며 “지능형 로봇 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로봇이 협력하는 스마트 조선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성원 바질컴퍼니 CTO는 “정밀 용접이 가능한 휴머노이드를 개발해 조선업 자동화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갤S25 엡지, 초슬림 디자인에 고성능 담아

삼성 오는 13일 온라인 공식 공개
5.8mm 두께, 2억 화소 카메라 탑재
韓·中 우선 출시, 글로벌 순차 확대

삼성전자가 오는 13일 오전 9시 ‘갤럭시 S25 엡지’를 온라인으로 공식 공개한다. ‘갤럭시 S’ 시리즈 사상 가장 얇은 두께와 고성능 사양을 갖춘 모델로, 본격적인 ‘슬림’ 스마트폰 경쟁에 포문을 연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8일 공식 뉴스룸에 ‘슬림, 그 이상의 슬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갤럭시 S25 엡지 언팩’ 초청장을 공개했다. 지난 2020년 ‘S20 시리즈’ 이



지난 1월 미국 새너제이 SAP센터에서 열린 ‘갤럭시언팩 2025’에서 공개된 갤럭시 S25 엡지(왼쪽부터), 갤럭시 S24 울트라 모형, 갤럭시 S23 울트라 모형의 모습. /삼성전자

후 5년 만에 일반·플러스·울트라 3종 체제에 변화를 주는 신규 라인업이다.

갤럭시 S25 엡지는 갤럭시 S25 플러스

와 같은 6.7인치 화면 크기에 두께는 5.8mm로 추정된다. 카메라 모듈을 포함해도 8.3mm에 불과하다. 무게는 163g으로, 6.2인치 일반 모델(162g)과 비슷한 수준이다. 초박형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기존 S25 시리즈와 대등한 수준이다. 퀄컴의 갤럭시 전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와 12GB 램(RAM)을 탑재하고 256GB·512GB 저장공간을 갖춘 것으로 예상된다.

카메라는 2억 화소 메인 렌즈와 1200만 화소 초광각 렌즈로 구성된 듀얼 시스템을 채택해 일상에서 고화질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전면 카

메라도 1200만 화소다.

‘갤럭시 AI’ 기능 역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초대장에서 “AI를 통해 사진과 영상 촬영부터 편집, 공유까지 카메라 경험의 모든 단계를 한 치원 끌어올렸다”며 “갤럭시 S25 엡지의 카메라는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눈’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1월 22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갤럭시 S25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S25 엡지 모델의 티저 영상과 실물을 처음 공개한 바 있다. 갤럭시 S25 엡지는 한국과 중국에서 우선 출시된 뒤, 이달 말부터 미국 등 주요 글로벌 시장으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혜민 기자 hyem@

삼성전자

QLED, TUV 인증 완료 프리미엄 TV 리더십 강화

삼성전자가 퀀텀닷 기술을 탑재한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 TV로 독일 시험·인증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리얼 퀀텀닷 디스플레이’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퀀텀닷은 머리카락을 수만 분의 일로 나눈 크기의 나노 입자로, 빛의 파장에 따라 정밀한 색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프리미엄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로 주목 받고 있다.

이번 인증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시한 퀀텀닷 디스플레이 기준에 따른 것으로, ▲퀀텀닷 필름 등 광학 부품과 ▲청색 LED 백라이트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Neo QLED8K 2종 ▲Neo QLED 4K 4종 등 총 9개 시리즈다.

TUV 라인란드 측은 삼성전자의 QLED TV가 스펙트럼 측정에서도 적·녹·청(RGB) 세 가지 색상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손태용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가운데) ‘리얼 퀀텀닷 디스플레이’ 인증 수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앞세워 해외시장 공략 가속화

르노코리아가 국내에서 흥행중인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를 앞세워 중동과 중남미 등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그랑 콜레오스의 중남미 수출 물량을 지난 7월 선적하면서 본격적인 해외시장 공략에 돌입했다.

이번에 수출 선적을 마친 그랑 콜레오스는 총 894대로 멕시코와 콜롬비아 시장에서 판매할 물량이다. 르노코리아는 멕시코, 콜롬비아 외에도 향후 브라질, 우루과이,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지역의 다양한 주요 시장에 그랑 콜레오스를 수출할 예정이다.

앞서 르노코리아는 지난 3월 그랑 콜레오스의 중동 지역 수출을 위한 사전 배송 물량 일부가 수출 길에 오르기도 했다.

르노코리아는 그랑 콜레오스를 앞세워 ‘인터내셔널 게임 플랜(International Game Plan)’ 계획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선택했고, 오는 2027년까지 8종의 신차를 출시하고 유럽 이외의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승용 기자

SK에스온, 베트남 광구서 원유 추가 발견

15-1/05 광구, 32m 유층 발견

SK이노베이션의 에너지 자원개발 자회사 SK에스온이 베트남 유전 개발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다.

SK에스온은 내년 하반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인 베트남 15-1/05 개발광구 황금나타 구조에 인접한 붉은나타 구조에서 원유를 추가로 발견하는데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SK에스온은 지난 1월 베트남 15-2/17 광구 탐사정 시추에서도 원유 부존을 확인한 후 시험 생산에 성공한 바 있다. 이어 3개월 만에 15-1/05 광구에서도 잇단 낭보를 전한 것이다.

베트남 15-1/05 광구의 운영권자인

미국 머피사는 지난 7일 어닝콜에서 베트남 남동부 해상의 쿨롱 분지에 위치한 15-1/05 광구 붉은나타 구조에서 원유 발견에 성공했으며 하루 2500배럴 규모의 고품질 경질 원유를 시험 생산해 냈다고 밝혔다.

머피는 “15-1/05 광구의 붉은나타 구조 탐사에서 심도 약 4100미터 부근 시추를 통해 32미터 두께의 유층을 발견했다”며 “이 구조는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황금나타 구조에서 약 5km(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원유 발견은 지난 1월 베트남 15-2/17 광구 원유 발견에 이은 올해 두번째 자원개발 성과”라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LG엔솔 “북미 생산역량 확대로 경쟁력 강화

‘엘티엠셀즈 3기’ 최종 인수

LG에너지솔루션이 GM과의 3번째 합작공장 ‘엘티엠셀즈 3기’의 인수를 최종 완료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가 이미 한 달 전 예고된 수순이라는 점에서 순탄하게 진행됐다는 평가가 따른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공시를 통해 미국 미시간 랜싱에 위치한 엘티엠셀즈 3기의 건물 등 자산 일체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랜싱 공장은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내 ‘세 번째 단독 공장’으로 전환됐다.

랜싱 공장은 총 부지 면적 약 95만m²으로 지난 2022년 착공 이후 2025년 5월 현재 98% 이상 건설이 완료되어 현

재 장비 반입을 진행 중에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인수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한층 확대하게 되었다. 북미 지역 기존 수주 물량 대응을 위해 생산시설 신·증설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구축이 완료된 공장을 활용함으로써 신규 설비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 시기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북미 지역 인프라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투자 효율화 전략은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수는 미국 현지 생산 체계 구축을 가속화해 현지 공급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